

불자 세상보기



정 천 구 서울대사범대학교 석좌교수

6월 4일에 있을 제6회 전국지방동시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5월 22일부터 개시된다. 그러나 벌써부터 불법헌수막 설차, 향음 및 선물제공, 허위선전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책제시를 통해 표심을 움직이려고 하기보다 게임의 규칙을 거역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구태(舊態)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아직도 후진적 선거문화에서 탈피하지 못한 일부 후보자들의 탈선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배경이 있다. 우선 유권자의 선택을 촉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쟁점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세월호 사건이 있지만 어린 영혼의 회생을 선거의 쟁점으로 삼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무상복지를 둘러싼 전면복치나 선별복치나 하는 굵직한 쟁점이 있었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 명분으로 삼은 기초선거 무공

천 공약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듯 했다. 그러나 당일 여론조사 형식을 거쳐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새누리당과 같이 정당공천을 결정했다. 정책 이슈가 되기 힘들다.

기초선거의 정당공천문제는 찬반 모두 그럴 듯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정당공천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정당정치가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정당공천이 없으면 후보자 식별이 어려워 정당공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정당 무공천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정당공천을 하면 기초선거를 중앙정치에 연속시키고 지방의 원을 특정정당의 지역관료자로 전락시킨다는 점을 지적한다.

문제는 여야가 대선기간에 함께 내걸었던 공약을 파기함으로써 정치 불신, 공약경시 풍조를 키웠다는 점이다. "약속(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것은 국제법의 기본원칙이고 공동체가 지켜야 할 당위이다. "거짓말하지 말라(不妄語)"는 붓다의 계율 역시 개인관계와 공동체를 유지하고 화합하는 기본원칙으로 설하신 것이다. 이번에 정치권은 안타깝게도 정치에서 합의 합당 명분으로 삼은 기초선거 무공

를 놓쳤다. 정치현실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정치현실이란 6.4지방선거 대선 후 치루는 첫 전국선거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과 함께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전초전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짐작된다. 7개 선거(①시·도 교육감 선거, ②시·도 지사 선거, ③시·군·구의 장 선거, ④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⑤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⑥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⑦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여야 간의 사활을 건 공방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공약은 해당지역문제가 중심이 되겠지만 복지, 경제민주화, 교육문제, 안보문제 등 지자체의 공동관심사를 한데 묶어 정당의 색깔을 강하게 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7장의 투표용지에 투표해야 함으로 후보자들의 인품과 공약, 그리고 소속정당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선택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정당의 정강

정책과 주장들을 잘 살펴보고 어느 정당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큰 약속인 헌법정신을 잘 지키면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진정으로 추구하는지를 판단해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인품의 선택에서는 말과 행동의 일치성, 경력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공약은 주민생활 향상에 대한 기여도와 실천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

필자는 또한 유권자들이 모든 문제를 무차별하게 선거쟁점으로 삼는 풍조에 휩쓸리지 말 것을 권고한다.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전문분야들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도 정치와 종교의 분리 조항(20조 2항)이 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31조 4항)하고 있다. 국가안보문제를 무차별하게 정치쟁점으로 삼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의 양식이다. 6.4선거가 국법과 게임의 룰을 잘 지키는 선거가 되어 생활정치를 실천할 유능하고 모범적인 후보자들이 당선되도록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4 선거, '생활정치' 실현의 장으로

社說

동국대 세계 불교학의 '동행선지식' 되길

5월 9일 동국대에서는 개교 108주년을 기념해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제 1회 동아시아 4개 대학 불교학 국제학술대회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을 비롯해 대만의 대만대 불학연구원, 일본의 동경대 인도철학불교학과, 중국의 북경대 철학과 등 동아시아 4개국 불교대학이 인문네트워크를 형성해 불교학의 중심축을 동아시아에 세우는 시급성이 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 동아시아 지역의 유수대학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국제불교학계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뜻깊은 자리다.

특히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동아시아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불교로 동아시아의 소통과 화해의 길을 모색하기에 더욱 시의적절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 불교는 같은 한역 불전을 근간으로 대승 불교를 신봉하는 공통의 불교문화권을 갖고

있다. 이 지역의 불교발전을 위한 연구, 그리고 인류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불사에 있어서는 모두 같이 절차탁마하며 동행해야 할 '동행선지식'이다.

특히 이번 주제인 '동아시아 불교전통과 근대 불교학'은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해 이상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동국대의 건학이념과도 잘 부합된다. 올해로 108주년을 맞은 동국대는 개교 이후 한국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왔다. 다른 학문과 달리 불교학은 종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학과 같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동아시아의 각 지역이 공통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서로의 불교학 전통을 이해하고 새로운 불교학을 건설하는데 함께하는 동행선지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기 종교엔 신념을, 이웃 종교엔 예의를

2006년 6월을 기억하는 불자들이 있는가. 당시 불교계와 개신교는 매우 불편했다. 부산기독교청년회연합이 부산 벡스코에서 'Again 1907 in Busan' 부흥회를 열고 "사찰이 무너지라"는 주제의 기도를 했다가 아니라 저주다. 이쯤되면 기도가 아니라 저주다.

당시 행사를 주최했던 목사는 교계 언론에 "선교를 진행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슬람사원이든 사찰이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는 몰상식을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개신교들의 기도는 불교는 물론 한국사회에 물의를 일으켰고, 부산 개신교는 비판의 화살을 비껴갈 수 없었다. 8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 개신교도들의 내면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더욱 대담해지고 뻔뻔해졌다.

5월 6일 부처님오신날, 서울 종로 조계사 인근에서 노상 전도를 하던 예수재단이 그 증거다. 조계사로 가기 위한 진입로에서 '예수는 유일한 그리스도' '동성결혼금지

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오직 예수만이 진리"라는 등의 노상 전도를 했다.

불자와 시민들이 막아섰지만 막무가내였다. 도리어 "집회 신고했다", "사찰 연등이 왜 거리로 나오냐"는 등의 역지를 부렸다.

인터넷 기사가 게재된 이후 당시 집회를 주도했던 목사는 본지에 전화를 걸어 "조계사가 치외법권 지역이나, 집회 신고를 해 문 제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도, "부활절과 성탄절에 교회 앞에서 목탁을 치며 법회를 보면 좋겠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불교도 그렇게 하시오"라는 상식 밖의 대답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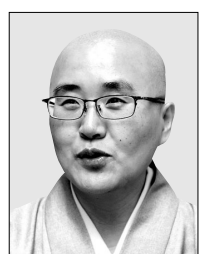
물론 이 같은 개신교인들은 일부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본다. 적어도 부처님과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을 가르쳤지 반목과 갈등을 가르치지 않았다. 자신의 종교에는 신념을, 다른 종교에는 존중과 존경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종교화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발언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5월은 '가정의 달'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는 퇴색됐고, 구조는 붕괴됐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에서 50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않는 미혼 인구는 지난 40년 사이 7배나 늘었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고 기초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주>

가족 간 대화와 소통 절실한 때



자우 스님 비로자나국제선원장

다섯 시간 걸려서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다녀왔다. 모든 사람들이 이 검은 옷을 입고 숙연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다. 한 쪽에서는 유가족과 기자들의 언성이 높다. 사람들의 마음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차 있다. 아이를 잃은 부모심정을 감히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 가정이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십년이 넘게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하면서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새삼 더 크게 느낀다.

어린이 영어캠프를 하면서 늘 하는 질문은 '세상에 태어나 가장 행복한 순간을 그리거나 이야기하기'다. 게임을 좋아하고 연예인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답은 놀람속 가족과 연관된 이야기이다. 가족 여행 갔을 때, 동생이 태어났을 때, 아빠에게 칭찬 받았을 때 등등. 하지만 어른들에게는 어떠한가? 스무살 된 아이를 교통사고로 잃은 어머니를 알고 있다. 그 부모는 아들의 죽음으로 삶의 의미를 상실해 버렸다. 최선을 다하여 서로 사랑을 보여 주었다면 슬픔이 조금 덜 할 것 같다. 부처님 말씀처럼 가족들이 지금 이 순간을 살면 좋겠다. 돈이 좀 넉넉하지 않더라도, 공부해 좀 못하더라도, 남보다 좋은 집에 살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 우리 가족에게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서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시대는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간의 대화와 소통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서로에 대한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잘 몰라 서로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원망한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아이는 부모를, 부모는 아이를. 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가? 불교가 물질문명으로 지친 현대인에게 마음속 보석과 같은 법신불을 만나게 도와 줄 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나오게 될 것이다.

5월은 가족이 마음공부하는 달



정규열 한미음과학원 기획조정실

은 나라가 가정의 달, 은혜의 달이라고 소리내기도 송구하고 죄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동안 수면 아래 잠들어 있던 여러 부조리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억눌렸던 마음들이 크게 부딪히는 것 같다. 불가에서는 큰 일 일수록 오히려 외부로 쏟아져 있는 시선을 거두어 자기 내면에 집중하라 가르친다. 그래서 올 5월은 더욱 마음공부에 집중할 때가 아닌가 싶다. 내가 몸담고 있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는 가정이다. 가정에서 '나'라는 존재는 부모도 되고, 배우자도 되지만, 형부, 며느리, 처제도 되고,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도 된다. 이처럼 인연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리며 자기 다른 역할과 소임을 하고 산다. 하지만 참된 삶이란, 수많은 인연 업

과로 만들어진 배우 역할로서의 내가 아닌 주인공으로서의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한미음과학원에서는 자신을 살피고 자각하는 마음공부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개설된 '한미음아버지마당'과 5월 13일부터 진행되는 '학부모프로젝트'다. 두 프로그램은 모두 아버지이기 이전에, 또 학부모이기 이전에 '나'는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내' 가족과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헤쳐 나갈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새롭게 조망해 보는 여정으로 짜여져 있다. 한미음아버지마당에 참여했던 수료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5월은 감사의 달이자 은혜의 달이다. 가정에서 마음공부할 수 있는 한미음아버지마당과 학부모프로젝트는 내가 있기까지 인연되어 준 조상님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자녀들과의 인연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깨달음의 시간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생전 예수재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생전 예수재는 살아 있을 때 사후(죽은 뒤)를 위하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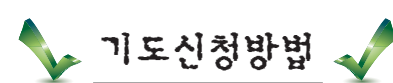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예수재가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있을 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로써, 이 재를 지내면 그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빚을 갚은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로써 업장소멸이 거의다,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빚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생전예수재 기도 방법과 방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스러운 방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생전예수재 기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들에게 드릴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도신청방법

생전예수재 기도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기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넣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자들에게서 다른 좋은 기도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해 보실 만한 기도로써, 생전예수재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